



조간 제8001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음력 11월 20일)

‘성장 엔진’ 동부권이 뛰어야 전남이 살아난다



인구·관광·산업 등 경제 전분야 절대적 비중 차지 ‘위기를 기회로’…올해 동부권 100년 대도약 원년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동안 변방으로 치부되던 전남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 지능과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의 최적인 전남이 이들을 끌고 있는 것이다. 전남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과 ‘광주근교권’, 그리고 여수·순천·광양 등 경제·관광 등 핵심산업들이 집중돼 있는 ‘동부권’으로 나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어느 한 지역도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산업화 이후 전남에서 차지하는 비중면에서 동부권은 전남의 심장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에 본보는 전남도에서 동부권이 갖는 의미, 경제와 관광 등 산업 비중,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산업구조의 재편 등에 대해 연중 기획을 집중 조명한다.

전남도가 새해 AI·에너지를 통한 대부 흥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가운데 철강·화학산업의 침체 장기화로 전남 동부권은 도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 관련기사 8면
일각에서 ‘동부권 소외론’을 주장하는 등 위기를 부각하고 있지만 전남도가 최근 ‘동부권 100년 대도약의 원년’ 선포와 함께 동부권 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전남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동부권의 재도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해 말 동부지역본부에서 2026년을 ‘동부권 100년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남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부권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을 AI·탈탄소·고부

가 기술로 고도화하고, ‘배터리·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해 동부권의 새로운 산업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동부권은 산업화 이전에는 풍부한 수산물 자원을 보유한 전국 최대의 수산물 보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에는 대규모 화학·제철산단이 들어서며 중화학공업의 일번지, 인구 규모는 동부권 6개 시·군에 81만8616명 등 전남 전체 인구의 45.8%에 달하는 등 동부권은 전남 인구·산업·경제의 중심地位를 차지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동부권의 침체를 막고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석유화학 대전환, 광양만권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ESS 클러스터, 여자만국 국가해양생태공원, 여수 광양항 중심 북극항로 중심 거점, 여수 중심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K-디즈니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여수 세계섬 박람회, 2028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종회 개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남해안 철도 개통·경전선 전철화, 영호남 동서내륙관광벨트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부권에 RE100 실현을 위해 여수·고흥 13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 곡성·구례 양수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와 여수·광양만권 산단 중심 AI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전남 동부권은 늘 전남의 중심이자 핵심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우주항공, 수소, 이차전지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엔진이다”며 “전남 동부권이라는 엔진이 힘차게 가동돼야 전남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출…7월 1일 특별시 출범 확신”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밝혀
‘특별법’ 내주 제출…2월 통과”

행정통합 주민투표도 검토
불가능시 ‘의회동의’ 방식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6월3일 통합단체장 선출, 7월1일 통합시 출범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 3층에서 열린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밝히며, 이를 위해선 특별법안이 반드시 다음 주에 국회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별시의 이름부터 위상, 비전, 광주전남의 과거·현재·미래가 높아든 특별법안을 만들어 2월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일정상 다음 주에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내빈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적 검토 결과, 주민투표를 시행할 경우 약 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설 명절 이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면 “사정이 생겨 (주민투표를) 하지 못한다면 그에 준하는 간담회, 공청회 등

을 법률의 범위에서 추진 할 수 있다”면 서 “통합협력협의체가 구성되면 시·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가야할 대통합의 본질은 간단하다”며 “통

합은 경제이고 일자리, 균형발전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하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특별법을 2월 안에 통과시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농협중앙회 등 대형 공공기관을 끌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제2 푸바오’ 광주 우치동물원 오나

이재명, 시진핑에 ‘판다’ 대여 제안…한중 우호 교류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 한 쌍’ 대여를 공식 제안했다. 판다의 새 보금자리로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을 지목,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행 기자단과 가진 오찬 겸 간담회에서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낙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로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도 우치동물원에서 지내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판다가 우치동물원에서 지내게 될 경우 한중 우호 교류의 교

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호남권을 대표하는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우치동물원은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고영철 문화신협 이사장, 중앙회장 당선

득표율 38.4%…2030년까지 4년 임기

제34대 신협중앙회장에 고영철(66·사진)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이 당선됐다.

고 당선인은 7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5파전으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784표 가운데 301표(득표율 38.4%)를 얻어 회장직에 올랐다.



고 당선인은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광주문화신협에서 실무책임자와 상임이사, 이사장을 지낸 현장형 금융인으로, 광주문화

신협을 전국 자산 규모 상위권 조합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을 비롯해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 송재용 남청주신협 이사장, 양준모 신협중앙회 이사,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 등 모두 5명이 출마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취업률 1위 서영대학교 76.4%

(2024년 대학정보공시, 일반대학+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기준)

www.seoyeong.ac.kr